도로 위 '파수꾼' 암행순찰대…추석 연휴 '긴장'

광주경찰 암행순찰대 동행해보니

연휴 이틀차 전통시장 등 순찰
신호위반 등 5건·과속 10건 적발
위반·도주 후 "봐달라"고 읍소도
"시민들의 교통수칙 준수 당부"

지난 15일 광주 도심 도로에서 광주경찰 암행순찰대 윤시연 팀장과 김현수 경위가 과속차량과 신호위반 단속을 펼치고 있다.

"광주경찰청 암행순찰대입니다. 차량 번호 XXXX, 선생님은 지금 신호를 위반하셨습니다.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대기해 주세요."

추석 연휴 이틀째인 지난 15일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인근 도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주행했다. 그 순간 승용차 1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붙어 급히 정차 지시를 내렸다.

차에서 내린 김현수 광주경찰 경위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겠다. 면허증을 제시해달라"고 지적했고 운전자는 "급하게 일하러 가는 중이었다.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읍소하다 이내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내쉰 뒤 김 경위에게 면허증을 내밀었다.

김 경위는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량이 급증하는 추석 명절 기간 교통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소하게 생각하는 법규 위반이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광주경찰 암행순찰대가 도심 내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암행순찰대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터미널과 역 등 명절날 시민들의 유동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장소를 중심으로 계도·단속을 펼쳤다.

2시간여동안 암행순찰차를 타고 동행해 보니 일반 승용차와 다르지 않은 외관에 순찰차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곡예주행을 펼치던 운전자들이 속속들이 적발됐다.

오전 10시30분께 서구 광천터미널에서 송정역으로 이동하던 중에도 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암행순찰차를 지나쳐갔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윤시연 광주경찰 암행순찰대 팀장이 마이크를 들고 "방금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했다. 갓길로 정차해달라"고 요구하자 화들짝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좁은 골목으로 핸들을 틀었다.

윤 팀장이 "차량번호가 이미 카메라에 녹화됐다. 도주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20여m를 더 주행하던 운전자는 의지를 잃고 주택가 앞에 멈춰 섰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울상을 지으며 선처해달라고 읍소했지만, 윤 팀장은 단호히 거절한 뒤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다.

윤 팀장은 "시민들의 교통의식이 크게 향상돼 암행순찰에 단속되면 대부분 수긍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며 "이처럼 가끔 도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미 장비에 자동으로 녹화돼 있어 큰 소용이 없다. 오히려 위반 항목을 늘리거나,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는 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 대시보드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도 교통안전 유지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차량의 단속 카메라는 고정형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 쌩쌩 내달리는 차량의 후미 번호판을 놓치지 않고 잡아냈다. 이날 암행순찰대는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돌며 과속 단속을 실시했다.

동행했던 2시간동안 적발된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위반사항은 5건이었으며, 과속 단속은 10건가량이었다. 다행히도 음주운전이나 사고 등 특이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암행순찰대원들은 원활한 도로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김현수 경위는 "추석 연휴는 제사 후 음복과 모임 횟수 증가 등으로 음주운전 적발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며 "귀성·귀경객들의 이동도 많아 교통경찰을 비롯한 지역경찰들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시연 팀장은 "암행순찰대나 단속 등이 없더라도 시민들이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어떠한 대형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의대 증원에 경쟁률 상승…광주·전남 수시모집 마감

전남대·조선대 의대 경쟁률↑
지역 대학 평균 경쟁률도 올라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입학원서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특히 의과대학 증원 영향으로 전남대와 조선대의 경쟁률이 높아졌다.

18일 전남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모집 총원 3946명에 2만490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6.31대 1(정원 내 6.63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시모집 경쟁률인 5.85대 1보다 0.5% 상승한 수치다.

증원으로 관심이 쏠린 의학과의 학생부교과(지역인재, 102명)전형은 7.86대 1로 지난해(78명 모집, 4.09대 1)에 비해 큰폭 올랐다.

조선대는 총 4573명 모집에 2만1360명이 지원해 4.67대 1(정원내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학 계열의 경쟁률은 의예과 11.70대 1, 치의예과 14.53대 1, 약학과 20.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동신대는 1459명 모집에 5250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3.53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 최종 경쟁률 (3.37대1) 보다 소폭 상승했다.

광주대는 5년새 가장 높은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36개 학부(과) 정원 1345명 모집에 6791명이 지원해 경쟁률 5.05대 1(이전 2021년 4.36대 1)을 기록했다.

호남대는 1574명 모집에 7345명이 지원해 평균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물리치료학과에는 42명 모집에 498명이 지원해 11.9대 1, 간호학과는 187명 모집에 1,388명이 지원해 7.4대 1, 반려동물산업학과는 30명 모집에 213명이 지원해 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교육대는 총 221명 모집에 1223명이 지원해 5.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경쟁률 4.09대 1(245명 모집, 1003명 지원)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는 150명 모집에 1896명이 몰려 경쟁률 12.64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11.51대 1)보다 15% 정도 경쟁률이 높아졌다.

한국에너지공대(켄텍)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00명 모집에 1981명이 지원해 19.81대 1을 기록, 전년도 경쟁률(15.38)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김은지 기자

가장 더운 9월…추석 연휴 지역 곳곳서 최고기온 경신

광주·순천·광양 9월 극값 1위 기록
기상청 "당분간 폭염 이어질 것"

광주·전남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는가운데 추석 연휴 일부 지역에선 기상 관측 이래 9월 중 낮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광주 35.7도, 광양 35.4도, 순천 33.6도까지 최고기온이 오르면서 9월 낮 최고기온 극값이 경신됐다.

특히 광주는 지난 13일 34.5도를 기록하며 9월 중 낮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했으나 하루 만에 34.8도로 오르면서 기록을 깼고 15일에는 이보다 더 높은 35.7도가 측정됐다.

지난 17일에는 15일과 같은 35.7도를 기록해 역대 9월 중 가장 더운 날 공동 1위 기록을 세웠다.

이밖에 지역별 최고 체감온도는 구례 37.6도, 곡성 37.5도, 광양 36.8도, 봉산(담양) 36.7도, 목포 34.6도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광주·전남 상공에 걸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해 당분간 폭염이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광주와 전남은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린 곳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 다시 기온이 오를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찬 기자

광주·전남 국립대 5년간 1만2천명 자퇴

전남대 '전국 3위' 불명예
취업난·교육 질 하락 원인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의 자퇴생 수가 최근 5년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거점국립대학인 전남대의 자퇴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치며, 강원대와 경북대에 이어 전국 세번째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1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광주·전남지역 내 5개 국립대의 자퇴생은 총 1만2622명에 달했다.

이중 지방거점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는 자퇴생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대에서는 2019년 978명, 2020년 1005명, 2021년 1066명, 2022년 1078명, 2023년 1168명으로 5년간 5295명이 자퇴했다. 전남대는 자퇴자 수가 가장 많은 강원대와 경북대에 이어 세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목포대학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600여명의 학생이 자퇴를 했으며, 2022년에는 예년보다 300명 증가한 952명이 학교를 떠났다. 2023년 자퇴생 수는 604명이다.

순천대학교에서도 매년 600여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 5년간 2889명의 자퇴생 수를 기록했다.

전문성이 두드러지는 목포해양대학교와 광주교육대학교의 경우 자퇴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목포해양대학교에서는 5년간 918명이 자퇴했으며, 광주교육대학교에서는 143명이 자퇴를 선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5개 주요 대학의 자퇴생 수는 5499명으로, 광주·전남지역 국립대 자퇴생 수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수도권 대학의 자퇴생 수는 2019년 1092명에서 2023년 1195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광주·전남지역 국립대와 같은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의 자퇴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얼어붙은 취업 시장과 학업 스트레스 등이 꼽힌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취업 기회가 적고, 학업 유지에 필요한 지원 환경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장학금 확대,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 강화 등 학생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식 의원은 "지역 국립대학교의 자퇴율이 높다는 것은 지역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지방대 학생들이 자퇴하지 않도록 학업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전남서 경운기 전도 사고 잇따라…운전자 2명 숨져

추석 연휴 전남에서 경운기 전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운전자 2명이 숨졌다.

18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께 장성군 북이면 한 야산으로 향하는 농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경운기가 농로에 넘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오른쪽으로 전도된 경운기에 깔린 A씨가 전신을 크게 다쳐 사망했다.

앞서 추석 당일이던 지난 17일 오후 1시59분께 해남 문내면의 한 농로에서 B(79)씨가 몰던 경운기가 2m 아래로 추락했다.

경운기에 깔려 중상을 입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정상아·윤준명 기자